## 오늘의 게시판

### 제 3회 탐진강 은어축제 개막식 오후 8시 강진군 탐진강 둔치공원

**행사**

〈11일〉

▲제 3회 탐진강 은어축제 개막식=오후 8시 강진군 군동면 석교리 탐진강 둔치공원. '은어야 놀자! 탐진강변에서'라는 주제로 15일까지. 다슬기·재첩잡기, 은어 맨손 잡기 등 체험행사와 은어친구 뱀장어릴레이 게임·은어박사 OX퀴즈 등 참여프로그램, 한여름밤의 매직쇼·대북공연·밸리댄스·탐진콘서트·은어가요제 등 공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림.

▲제 7회 여수 국제청소년 축제 개막식=오후 7시 여수 진남체육공원. 외국인 350명 포함, 국내외 청소년 6만여명 참석 예정. 청소년 대상 해상 투어 및 영어토론회, 청소년 가요제 및 스트릿 댄스 경연대회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13일까지.

▲제 10회 무안백련대축제=오후 3시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면적 10만평) 행사장. 15일까지. 버블마임 공연·마안마당극 '품바품바'· 포크콘서트 '연꽃이 있는 풍경' 등.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밤 8시20분~50분 진도군 가계공연장. 해상불꽃놀이. 8시50분부터 10시30분 락콘서트.

▲제 120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김의정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이 '세계차 문화'라는 주제로 강연.

▲제 498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강연.

〈12일〉

▲2006 무등산 숲학교=오전 9시30분 문빈정사 앞.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무등산 일대에서 숲체험 행사.

**공연**

▲제 322회 토요민속여행=12일(토) 오후 4시10분 진도군 고군면 회동 야외공연장.

▲전남도립국악단 상설공연=12일(토) 오후 5시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

▲죽녹원 상설 공연=12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공연장. 포크송 공연.

**전시**

▲북한관련 도서 전시회=20일까지 일곡도서관 1층 로비. 북한 도서 150여권 전시. 북한 영화 상영.

▲땐스메탈 그룹전=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도구열전'을 주제로 금속 공예 작품 전시. 작가 19명 참여.

▲파랑새는 있다=16일까지 롯데화랑. 동신대 조진호 교수의 사진전으로 분교 학생들의 꿈을 담은 작품 16점 전시.

▲중국작가 탕마오홍의 'Sunday'전=2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광주시립미술관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인 탕마홍씨가 제작한 대형 애니메이션 작품 전시.

▲제 7회 무등산 사랑전=31일까지 자미갤러리. 한국화·서양화·문인화 등 51점.

**역사속의 오늘**

▲도원 김홍집 태어남(1842)

▲스코틀랜드 출신의 미국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세상 떠남(1919)

▲농학박사 우장춘 박사 세상 떠남(1959)

▲조오련, 헤엄쳐서 대한해협 (부산-대마도간 53㎞) 횡단에 성공(1980)

▲우리 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과학위성 '우리별 1호' 발사(1992)

## 뉴스퀴즈

24. '아시아 홈런킹'으로 불리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한국 선수가 최근 한·일 개인통산 400홈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1일 도쿄돔에서 열린 한신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 투런 홈런에 이어 9회말 끝내기 2점포(시즌 33호·통산 401호)를 뿜어냈습니다.

이 선수의 400호 홈런은 일본의 오 사다하루(왕정치)와 미국의 알렉스 로드리게스(뉴욕 양키스)에 이어 3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이승엽 ②장종훈 ③김봉연 ④양준혁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 미스코리아 손민지 사망 '애도 물결'

노현정(27) KBS 아나운서 결혼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으면서 8월 둘째주 인터넷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여자 아나운서와 재벌가의 인연도 화제에 올랐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노 아나운서의 신랑이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4남인 고 정몽우 전 현대 알루미늄 회장의 셋째 아들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설전도 벌어졌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등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인터넷에서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도심 피서지나 음식, 건강 유지법 등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았다.

또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하루 동안 최대 전력 수요가 경신되는 등 전력 소비도 급증했고, 수돗물 사용량도 크게 늘었다.

된장녀가 인터넷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된장녀의 하루'라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고 남녀 네트즌들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된장녀는 외모와 학벌을 무기로 스스로 능력이 없으면서 남자 친구에게 의존해 명품 선물을 받고 비싼 브랜드 화장품으로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추장 남자들도 회자되고 있다.

미스코리아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지난 3일 열린 '2006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은 이하늬(23·서울 진·서울대 음대 국악과 석사과정)양이 차지했다. 이하늬는 이미 아버지가 이상업 국정원 2차장, 어머니는 가야금 인간문화재로 선정된 문재숙 이화여대 교수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광주·전남 진인 김수현(21·조선대 문예창작과 3년)씨는 미스 한국일보에 선발됐다.

혈액암으로 투병중이던 미스코리아 손민지(27)씨가 지난 6일 밤 사망했다는 소식도 네티즌 사이에 오르내렸다.

지난 2000년 미스코리아 골든듀 출신인 손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 등에 애도의 글을 잇따라 올리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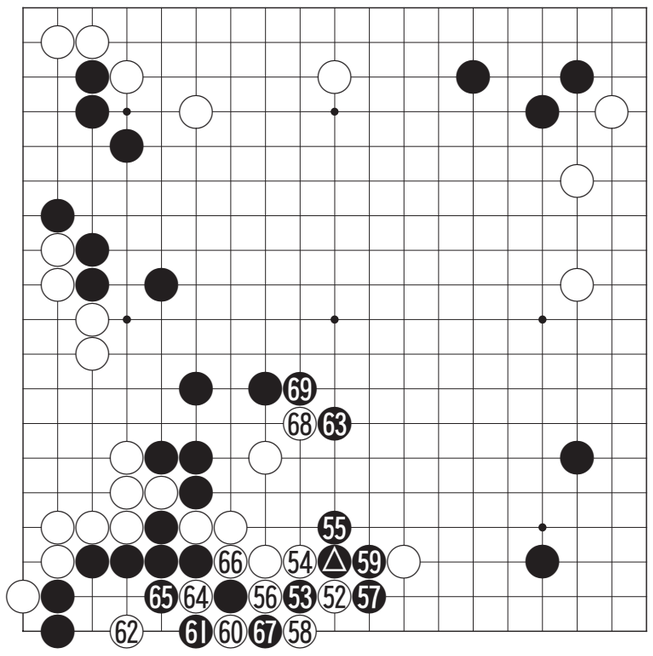
이외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을 비롯, 흔들녀 동영상으로 유명한 김옥빈이 열연한 영화 다세포소녀(감독 이재용), 경주용 말과 소녀의 교감을 소재로 한 동물 영화 '각설탕', 오는 11월 15일 제대하는 송승헌도 인기 검색어 대열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급상승 검색어** 〈네이트 닷컴 제공〉

| | | | |
|---|---|---|---|
| 1위 | 노현정결혼 | 6위 | 영아유기사건 |
| 2위 | 열대야현상 | 7위 | 다세포소녀 |
| 3위 | 된장녀 | 8위 | 각설탕 |
| 4위 | 2006 미스코리아 | 9위 | 송승헌 |
| 5위 | 손민지 혈액암 | 10위 | 아유미 |

영화 '각설탕'의 여주인공 임수정. 경주마 프로 기수가 되는 시은 역할로 말과 우정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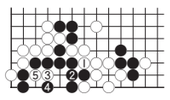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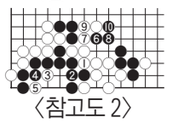
### 치중의 묘수

제4보(52~70)

白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1〉



〈참고도 2〉

백 ◎로 두어 흑 ▲의 침공을 허용한 것은 강심장인 김영수 5단이 아니고서는 둘 수 없는 수단이다. 백이 곤란한가 했으나 김 5단은 백 52로 2선에 붙이는 비책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박광주 5단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노장, 흑 52로 젖히고 55로 느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순식간에 목숨을 건 대혈투가 벌어졌다.

여기에서 김 5단은 다시 60으로 젖히고 62에 치중하는 묘수를 들고 나온다. 62로는 '참고도1'의 백 1로 단수하고 3으로 치중하면 잡는다.

그러나 '참고도 2'의 4로 잇고 이하 10까지 막아가면 거꾸로 백이 잡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바로 패로 들어간 62가 묘수가 된다.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패싸움이다. 70-패따냄.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 바둑소식

**이창호, 亞 TV바둑 결승진출**

이창호 9단이 10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TV바둑 아시아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하네나오키 9단에게 297수 만에 백 2집 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창호 9단은 11일 같은 장소에서 중국의 왕시 5단과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이 9단은 이날 상변과 좌변 전투에서 하네 나오키 9단의 실수를 정확히 포착한 뒤 미세한 형국을 만드는데 성공, 빈틈없는 끝내기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이창호 9단은 왕시 5단과 지난 2005년 LG배와 농심배에서 두 차례 만나 모두 승리한 바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1일(음 7월 18일 壬申)

**子** 36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인다. 48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피하라. 60년생 지나간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72년생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84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소화도 막는다. 행운의 숫자 : 23, 43

**丑** 37년생 자식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긴다. 49년생 건강과 재물이 한꺼번에 위험하다. 61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라. 73년생 위장이 괴로우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85년생 온 가족의 변동이 예상된다. 북쪽은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寅** 38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 50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결말이 보인다.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나 언행을 조심하면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 74년생 돈은 생기나 쓸 구멍이 더 많다. 행운의 숫자 : 10, 42

**卯** 39년생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마음은 어지럽다. 51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시기다. 63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75년생 주변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 결과는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06, 28

**辰** 40년생 쌓아놓은 권부를 버려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해야 좋으리라. 52년생 준비를 잘하면 높은 산도 낮아 보인다. 64년생 구설수로 사면초가니 언행을 삼가 하라. 76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41

**巳** 41년생 하는 일이 불안하다 속사정을 살펴보라. 53년생 남편을 이해하라 고민에 빠졌다. 65년생 부부간의 사소한 언쟁이 있으나 많은 이해로 애정은 새롭다. 77년생 가족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27

**午** 42년생 자신의 명예를 먹칠하는 구설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자선을 베풀라. 54년생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66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78년생 큰 소비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未** 43년생 온고지신, 모든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길사가 있으리라. 55년생 안과계의 검진을 해보라. 67년생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니 상대방을 인정하면 평화는 유지된다. 79년생 바늘허리 못 메어 쓰니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16, 22

**申** 44년생 밤길을 비단 옷 입고 가는 격이니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빛이 없다. 56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있다. 68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칭찬이 없다. 80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윗사람의 인정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33

**酉** 45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57년생 성급한 결정은 매사가 헛일이니 결정은 내일로 미루라. 69년생 칭찬을 아끼지 마라 부하가 무심하다. 81년생 진퇴양난이지만 돌파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34

**戌** 46년생 아침부터 서두르나 결과는 없다. 58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70년생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겼구나. 82년생 고자질하는 부하가 보이니 사전에 단속하면 구설은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30

**亥** 47년생 짊어진 재물을 형제와 나누어 보라 기쁨은 배가 된다. 59년생 아랫사람의 과오를 파지 말고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라. 71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욕심을 버려라. 83년생 촌음을 아껴 쓰라. 하루해가 짧도다. 행운의 숫자 : 08, 3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 굿모닝 잉글리쉬 <709>

**It's such a small world, isn't it?**

**세상 참 좁습니다**

A:Did you say your friend's name was Broadmann chea?
B:Yes. He's from Namwon.
A:I happen to know him. He's my friend.
B:Really? **It's such a small world, isn't it?**

A:자네, 자네 아버님 이름이 Broadmann chea라고 했던가?
B:네, 그 어른은 나뭔 출신인데요.
A:실은 그 분을 안다네. 내 친구야.
B:정말요? **세상 참 좁습니다.**

I happen to ~ : 실은 ~이라네, 우연히 ~하게 되다.
- I happen to be his uncle. 실은 [마침] 내가 그의 삼촌이다.
〈참고〉 Do you happen to~ : 혹시 ~인가요?
Do you happen to have the long pipe?
혹시 긴 파이프 가지고 계세요?
I happen to meet kay.
= I came across Mary. = I ran into Mar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 오하이오 니혼고 <709>

**それは うらやましいですね**

**그것 부럽군요**

A:すしづめの 電車(でんしゃ)の中(なか)は 大變(たいへん)ですよ。
B:ところで 驛(えき)まで どうやって 行くんですか。
A:家内(かない)の運轉(うんてん)する車で 行くんですよ。
B:**それは うらやましいですね。**

A: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안은 난리예요
B:그런데 역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A:집사람이 운전하는 차로 갑니다
B:**그것 부럽군요.**

すしづめ : 초만원
- 초밥을 도시락에 빈틈없이 꽉채우는모습에서 나온말
うらやましい : 부럽다, 샘이나다
家内(かない) : 자기의처 , 아내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 니하오 쭝구워 <427>

**去中国银行怎么坐车?**

**중국은행에 가려면 어떻게 차를 타지요?**

A:去中国银行怎么坐车?
[illegible]
B:你坐26路汽车到医院站下车, 就可以了。
[illegible]
A:26路汽车在哪儿上车?
[illegible]
B:在马路对面.
[illegible]
A:중국은행에 가려면 어떻게 차를 타지요?
B:26번 버스를 타고 의원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A:26번 버스는 어디서 타죠?
B:길 건너편에서요.

下车 [illegible]
对面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 한자 이야기 <327>

**水魚之交 (수어지교)**

**물 수, 물고기 어, 어조사 지, 사귈 교**

수어지교(水魚之交)는 문자대로 하면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다. 물과 물고기는 떼어놓을 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이처럼 서로의 인간성과 재능을 잘 알고, 상하의 관계가 미덥고 친밀한 것을 말한다.

유비(劉備)가 삼고초려(三顧草廬)하여 맞아들인 제갈공명(諸葛孔明)은 천하에 큰 뜻을 펼칠 경륜을 유비에게 설명하였다. 유비는 공명이 설명하는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계획을 듣고 공명의 혜안에 감탄하였다. 이때부터 유비는 공명에게 마음을 뺏겨 침식(寢食)을 함께하며 천하를 이야기 하였다. 공명 또한 주군의 인품에 반해 전력을 다해 유비를 섬겼다.

그런데 도원결의(桃園結義)이래 유비와 고생을 함께 해온 관우와 장비로서는 유비가 공명과 매우 친함에 시샘을 느껴 불만을 토로했다. "어린 공명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존경하십니까? 조금 도가 지나치는 듯합니다."라고 하자, 유비는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다. 너희들은 두 번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처럼 임금과 신하의 신뢰관계를 말할 때는 '군신수어지교'라고도 한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